

세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통찰

1. 서사적(敘事的) 세계관의 전개_천지 만물에서 사람까지

천지의 탄생에서 만물의 생성까지

천지가 있는 뒤에 만물이 생겨나니,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이 만물이다. 그래서 둔(屯)으로 받았다. 둔은 가득함이니 물건이 처음 나온 것이다. 물건이 나면 반드시 어리므로 몽(蒙)으로 받았다. 몽(蒙)은 어림이니, 물건이 어린 것이다. 물건이 어리면 기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수(需)로 받았으니, 수(需)는 음식의 도리다.

有天地然後에 萬物生焉하니 盈天地之間者唯萬物이라 故受之以屯하니 屯者는 盈也니 屯者는 物之始生也라 物生必蒙이라 故受之以蒙하니 蒙者는 蒙也니 物之穉也라 物穉不可不養也라 故受之以需하니 需者는 飲食之道也라

분쟁의 종식과 태평의 도래

음식이 있으면 분쟁이 있으므로訟(訟)으로 받았고, 분쟁은 반드시 여럿이 일어남이 있으므로 사(師)로 받았으며, 사는 무리이니 무리는 반드시 친한 바가 있으므로 비(比)로 받았고, 비는 친함이니 친하면 반드시 모이는 바가 있으므로 소축(小畜)으로 받았으며, 물건이 모인 뒤에 예(禮)가 있으므로 이(履)로 받았고, 예를 행하여 형통한 뒤에 편안하므로 태(泰)로 받았다.

飲食必有訟이라 故受之以訟하고 訟必有衆起라 故受之以師하고 師者는 衆也니 衆必有所比라 故受之以比하고 比者는 比也니 比必有所畜이라 故受之以小畜하고 物畜然後에 有禮라 故受之以履하고 履而泰然後에 安이라 故受之以泰하고

어둠의 시대를 넘어 겸손에 머물다

태(泰)는 통(通)함이니 사물은 끝내 통(通)할 수 없으므로 비(否)로 받았고, 물건은 끝내 비색(否塞)할 수 없으므로 동인(同人)으로 받았고, 남과 함께 하는 자는 물건이 반드시 돌아오므로 대유(大有)로 받았고, 큰 것을 소유한 자는 가득한 채 해서는 안되므로 겸(謙)으로 받았고,

泰者는 通也니 物不可以終通이라 故受之以否하고 物不可以終否라 故受之以同人하고 與人同者는 物必歸焉이라 故受之以大有하고 有大者는 不可以盈이라 故受之以謙하고

겸손한 자에게 사람이 따르고

큰 것을 소유하고도 겸손하면 반드시 즐거우므로 예(豫)로 받았고, 즐거우면 반드시 따름이 있으므로 수(隨)로 받았고, 기쁨으로써 남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일이 있으므로 고(蠱)로 받았고, 고(蠱)는 일이니, 일이 있는 뒤에 커질 수 있으므로 임(臨)으로 받았고,

有大而能謙이 必豫라 故受之以豫하고 豫必有隨라 故受之以隨하고 以喜隨人者必有事라 故受之以蠱하고 蠱者는 事也니 有事而後에 可大라 故受之以臨하고

형통하면 다하고 다하면 돌아오니

임(臨)은 큼이니 물건이 커진 뒤에 볼 만하므로 관(觀)으로 받았고, 볼 만한 뒤에 합함이 있으므로 서합(噬嗑)으로 받았고, 합(噬)은 합함이니 물건은 구차히 합할 뿐일 수 없으므로 비(賁)로 받았고, 비(賁)는 꾸밈이니 꾸밈을 지극히 한 뒤에 형통(亨通)하면 다하므로 박(剝)으로 받았고, 박(剝)은 깎여서 다하는 것인 바 사물은 끝내 다할 수 없으니, 박(剝)은 위에서 다하면 아래로 돌아오기 때문에 복(復)으로 받았고,

臨者는 大也니 物大然後에 可觀이라 故受之以觀하고 可觀而後에 有所合이라 故受之以噬嗑하고 噬者는 合也니 物不可以苟合而已라 故受之以賁하고 賁者는 飾也니 致飾然後에 亨則盡矣라 故受之以剝하고 剝者는 剝也니 物不可以終盡이니 剝이 窮上反下라 故受之以復하고

돌아오면 진실하리니

돌아오면 망령되지 않기 때문에 무망(无妄)으로 받았고, 무망이 있는 뒤에 크게 모일 수 있으므로 대축(大畜)으로 받았고, 물건이 크게 모인 뒤에 기를 수 있으므로 이(離)로 받았고, 이(離)는 기름이니 기르지 않으면 동할 수 없으므로 대과(大過)로 받았고, 사물은 끝내 지나칠 수 없으므로 감(坎)으로 받았고, 감(坎)은 빠짐이니 빠지면 반드시 걸리는 바가 있으므로 이(離)로 받았으니, 이(離)는 걸림이다.

復則不妄矣라 故受之以无妄하고 有无妄然後에 可畜이라 故受之以大畜하고 物畜然後에 可養이라 故受之以하고 者는 養也니 不養則不可動이라 故受之以大過하고 物不可以終過라 故受之以坎하고 坎者는 陷也니 陷必有所麗라 故受之以離하니 離者는 麗也라

남녀가 있는 뒤에 부부가 있고

천지(天地)가 있는 뒤에 만물(萬物)이 있고, 만물(萬物)이 있는 뒤에 남녀(男女)가 있고, 남녀(男女)가 있는 뒤에 부부(夫婦)가 있고, 부부(夫婦)가 있는 뒤에 부자(父子)가 있고, 부자(父子)가 있는 뒤에 군신(君臣)이 있고, 군신(君臣)이 있는 뒤에 상하(上下)가 있고, 상하(上下)가 있는 뒤에 예의(禮義)를 베풀 곳이 있는 것이다.

有天地然後에 有萬物하고 有萬物然後에 有男女하고 有男女然後에 有夫婦하고 有夫婦然後에 有父子하고 有父子然後에 有君臣하고 有君臣然後에 有上下하고 有

上下然後에 禮義有所錯니라

부부의 도는 오래 가야 하고

부부(夫婦)의 도(道)는 오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항(恒)으로받았고, 항(恒)은 오래함이니 물건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 없으므로 돈(遯)으로받았고, 돈(遯)은 물러감이니 물건은 끝내 물러갈 수 없으므로 대장(大壯)으로 받았고, 물건은 끝내 장성할 수 없으므로 진(晉)으로받았고, 진(晉)은 나아감이니 나아가면 반드시 상(傷)하는 바가 있으므로 명이(明夷)로받았고,

夫婦之道不可以不久也라 故受之以恒하고 恒者는 久也니 物不可以久居其所라 故受之以遯하고 遯者는 退也니 物不可以終遯이라 故受之以大壯하고 物不可以終壯이라 故受之以晉하고 晉者는 進也니 進必有所傷이라 故受之以明夷하고

밖에서 다친 자 집으로 돌아온다

이(夷)는 상함이니 밖에서 상한 자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므로 가인(家人)으로 받았고, 가도(家道)는 궁하면 반드시 어그러지므로 규(睽)로받았고, 규(睽)는 어그러짐이니 어그러지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蹇)으로받았고, 건(蹇)은 어려움이니 물건은 끝내 어려울 수 없으므로 해(解)로받았고

夷者는 傷也니 傷於外者必反其家라 故受之以家人하고 家道窮必乖라 故受之以睽하고 睽者는 乖也니 乖必有難이라 故受之以蹇하고 蹇者는 難也니 物不可以終難이라 故受之以解하고

무엇이 해롭고 무엇이 이로운가

해(解)는 늦춰짐이니 늦춰지면 반드시 잃는 바가 있으므로 손(損)으로받았고, 덜고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더하므로 익(益)으로받았고, 더하고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터지므로 궤(夬)로받았고, 궤(夬)는 터짐이니 터지면 반드시 만나는 바가 있으므로 구(姤)로 받았고, 구(姤)는 만남이니 물건이 서로 만난 뒤에 모이므로萃(萃)로 받았고,

解者는 緩也니 緩必有所失이라 故受之以損하고 損而不已면 必益이라 故受之以益하고 益而不已면 必決이라 故受之以夬하고 夬者는 決也니 決必有所遇라 故受之以姤하고 姤者는 遇也니 物相遇而後에 聚라 故受之以萃하고

우물에서 얻는 변혁의 도리

취(萃)는 모임이니 모여서 올라감을 승(升)이라 이르므로 승(升)으로 받았고, 올라가고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곤(困)하므로곤(困)으로 받았고, 위에 곤(困)한 자는 반드시 아래로 돌아오므로 정(井)으로받았고, 우물의 도(道)는 변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혁(革)으로받았고, 물건을 변혁함은 가마솥 만함이 없으므로 정(鼎)으로받았고, 기물(器物)을 주관하는 자는 장자(長子)만한 자가 없으므로 진(震)으로 받았고,

萃者는 聚也니 聚而上者謂之升이라 故受之以升하고 升而不已면 必困이라 故受

之以困하고 困乎上者必反下라 故受之以井하고 井道不可不革이라 故受之以革하고 革物者莫若鼎이라 故受之以鼎하고 主器者莫若長子라 故受之以震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돌아 온다

진(震)은 동함이니 물건은 끝내 동할 수 없어 멈추므로 간(艮)으로 받았고, 간(艮)은 멈춤이니 물건은 끝내 멈출 수 없으므로 점(漸)으로 받았고, 점(漸)은 나아감이니 나아가면 반드시 돌아오는 바가 있으므로 귀매(歸妹)로 받았고

震者는 動也니 物不可以終動하여 止之라 故受之以艮하고 艮者는 止也니 物不可以終止라 故受之以漸하고 漸者는 進也니 進必有所歸라 故受之以歸妹하고

나그네는 용납 할 곳이 없어

돌아갈 곳을 얻은 자는 반드시 커지므로 풍(豐)으로 받았고, 풍(豐)은 큼이니 큼을 궁극히 하는 자는 반드시 그 거처를 잃으므로 여(旅)로 받았고, 나그네가 되면 용납할 곳이 없으므로 손(巽)으로 받았고, 손(巽)은 들어감이니 들어간 뒤에 기뻐하므로 태(兌)로 받았고

得其所歸者必大라 故受之以豐하고 豐者는 大也니 窮大者必失其居라 故受之以旅하고 旅而无所容이라 故受之以巽하고 巽者는 入也니 入而後에 說之라 故受之以兌하고

기뻐한 뒤에는 헤어지기 마련

태(兌)는 기뻐함이니 기뻐한 뒤에 헤어지므로 환(渙)으로 받았고, 환(渙)은 떠남이니 물건은 끝내 떠날 수 없으므로 절(節)로 받았고, 절제하여 믿으므로 중부(中孚)로 받았고, 자신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결행하므로 소과(小過)로 받았고, 남보다 지나침이 있는 자는 반드시 구제하므로 기제(既濟)로 받았고, 사물은 궁극히 할 수 없으므로 미제(未濟)로 받아 마친것이다.

兌者는 說也니 說而後에 散之라 故受之以渙하고 渙者는 離也니 物不可以終離라 故受之以節하고 節而信之라 故受之以中孚하고 有其信者는 必行之라 故受之以小過하고 有過物者는 必濟라 故受之以既濟하고 物不可窮也라 故受之以未濟하여 終焉 하나라

2. 수리적(數理的) 세계관의 전개_자연의 차례와 삶의 차례

생태적 삶의 원형

칠월에 대화심성이 서쪽으로 흘러가면
구월에 옷을 지어 바친다네
일양(一陽)의 날에는 바람이 차갑고
이양(二陽)의 날에는 날씨가 차가우니
옷이 없고 갈포가 없으면
어떻게 한 해를 마치겠는가

삼양(三陽)의 날이 되면 쟁기를 가져오고
 사양(四陽)의 날이 되면 성큼성큼 걸어가 농사를 짓네
 우리 여인네들과 함께
 저 남쪽 밭이랑에 새참을 내가니
 나랏님 찾아와 함께 기뻐하네¹⁾

약 3,000년 전의 평화로운 전원생활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는 일명 빈풍가(邇風歌)로 일컬어지는데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고대인들의 삶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양기(陽氣)의 소식(消息)과 인간의 삶을 연관 짓는 사유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확인해 준다.²⁾ 3, 4행과 7, 8행에 보이는 일지일(一之日), 이지일(二之日), 삼지일(三之日), 사지일(四之日)은 각각 일양(一陽)의 날, 이양(二陽)의 날, 삼양(三陽)의 날, 사양(四陽)의 날로 양기가 하나씩 축적되어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한대의 맹희(孟喜)와 경방(京房)을 대표로 전개된 이른바 괘기역학(卦氣易學)적 사유가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주(周)나라 초기의 시에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 시에서 인간은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며 귀뚜라미나 뽕꼬리와 함께 사는 존재로 그려지는데, 가장 중요한 자연의 변화는 양기가 하나 둘씩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는 음과 양을 기호화하여 자연의 변화를 괘로 그려낸 『주역』의 사유체계와 흡사하다.

이보다 훨씬 뒤인 전국시대 말기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예기』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삶이 그려져 있다.

이 달에는 천기가 하강하고 지기가 위로 올라가 천지가 서로 화합하고 초목의 싹이 튼다. 왕이 명령하여 농사를 짓게 한다... 언덕과 비탈진 곳, 들판과 습지 따위의 토질에 잘 맞는 곡식이 무언지 살핀 뒤 오곡을 심어서 백성들을 인도한다. 반드시 왕이 직접 농사를 지어 그 일을 삼가 닦아서 먼저 준칙을 결정해주어야 농민들이 해매지 않는다.³⁾

이 또한 천기와 지기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다는 내용인데 여기서의 천기는 양기이고 지기는 음기이다. 이처럼 천기와 지기의 변화를 통해 농사시기를 판단하고 농민들로 하여금 제 때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이 통치자의 중요한 임무이다.⁴⁾

1) 七月流火 九月授衣 一之日霽發 二之日栗烈 無衣無褐 何以卒歲 三之日于耜 四之日舉趾 同我婦子 饁彼南畝 田畯至喜 『詩經』 「邇風 七月」

2) 이런 방식의 전원 풍경은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동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 유사한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이를테면 19세기 조선의 정학유(丁學游)가 지은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도 『시경』의 이 부분과 『예기』의 「월령」 편에서 기원한 농경생활을 근간으로 한 전원적 삶을 구현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3) 是月也 天氣下降 地氣上騰 天地和同 草木萌動 王命布農事 命田舍東郊 皆修封疆 審端經術 善相丘陵 阪險原隰 土地所宜 五穀所殖 以教道民 必躬親之 田事既飭 先定準直 農乃不惑 『禮記』 「月令」

4) 농사시기를 결정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이 같은 통치 행위는 조선왕조의 경우에도 태종대부터 마지막 임금 순종에 이르기까지 각종 선농 의례가 200여차례 이상 기록될 정도로 광범위하

이 부분에서 천기와 지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승, 하강하는 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후대의 해석에 따르면 천기는 양기이고 지기는 음기로 시기에 따라 상승하고 하강하는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노자 『도덕경』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성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도(道)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⁵⁾

구문상 다른 방식으로 번역될 여지가 별로 없는 이 네 마디가 무슨 뜻인지에 관해서는 참으로 다양한 해석이 있다. 그 중 이 네 마디를 압축하여 ‘도가 만물을 낳는다 [道生萬物]’는 뜻으로 이해하여 노자가 말하는 도는 만물의 근원적 실체임을 밝힌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러한 견해는 “천하 만물은 유에서 생겨났고 유는 무에서 생겨났다.”⁶⁾는 『노자 제40장』의 언급과 연관지어 유(有)인 만물이 무(無)인 도(道)에서 생성된다는 형이상학적 생성론으로 이어졌지만 이 같은 관점으로는 왜 하필 “셋이 만물을 낳는다 [三生萬物].”고 한 것인지 분명하게 해명할 수 없다.

그런데 위에서 인용한 『시경』 「칠월」 시와 『예기』 「월령」 편을 해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덕경』의 이 구절 또한 양기의 소식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아주 간단하게 ‘삼생만물(三生萬物)’이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다. 곧 삼을 삼양의 날로 이해하면 양기가 하나 둘씩 쌓여 셋이 되었을 때 만물이 비로소 자라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역』의 십이소식괘를 기준으로 삼양의 날을 따지면 주나라의 정월 곧 일년을 시작하는 달인 1월달이 삼양의 날이다.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에 양효(一) 세 개가 겹쳐져 있고 위에는 음효(--) 세 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으로 이것을 태(泰)괘라 한다. 태괘는 위에 있는 음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 있는 양기가 위로 올라가 서로 만나는 모양으로 천지가 화합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상전에서는 “하늘과 땅이 교제하는 것이 태이다 [天地交泰].”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칠월」 시에 나오는 일양의 날은 복(復)괘(양이 맨 아래에 하나 있다.)에 해당하는 11월이고, 이양의 날은 임(臨)괘(이건 아래에 양이 둘이다.)에 해당하는 12월이다.

그런데 『춘추』의 첫 번째 기사를 보면 ‘원년춘왕정월(元年春王正月)’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노나라 은공의 즉위 원년을 표시하고 있는 이 기사는 봄을 주나라 왕이 결정한 정월에 해당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주나라의 월력을 기준으로 하면 정월은 봄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주역』에는 봄을 상징하는 괘가 또 하나 있다. 바로 둔(屯)괘이다. 둔괘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乾)괘와 땅을 상징하는 곤(坤)괘에 이어 세 번째로 나온다. 따라

게 확산되었다. 태종 11년8월 25일 2번째기사에서 순종 1년 7월 23일(양력) 3번째기사에 이르기까지의 『朝鮮王朝實錄』.

5) 道生一，一生二，二生三，三生萬物. 『道德經』 第42章.

6) 天下萬物生於有，有生於無. 『道德經』 第40章.

서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만나는 게 둔이다. 괘의 모양은 다르지만 괘가 담고 있는 뜻, 곧 하늘과 땅이 만난다는 뜻은 태괘와 같다. 둔(屯)자는 상형문자로 지표면(‘一’은 지표면을 그린 것이다.)을 풀이 뚫고 나오는 모양을 그린 글자이다. 풀이 땅을 뚫고 나오는 시기는 말할 것도 없이 봄이다. 둔괘는 십이소식괘에 배열되지는 않았지만 시기로 치면 봄에 해당하는 괘이다.

갑골문에서는 둔(屯)과 춘(春)은 같은 글자로 쓰인다. 물론 둔(屯)자 밑에 날일(日)자를 붙인 것이 정자이고 생략해서 쓴 것이 둔(屯)자인데 둔(屯)자만으로도 봄이란 뜻으로 쓴다. 또 갑골문에는 맨 위에 수풀림(林)자가 있고 가운데에 둔(屯)자가 있고 맨 아래에 일(日)자를 붙인 글자도 있는데 이것도 봄춘(春)자로 쓰인다.

따라서 시경과 춘추의 기록을 『주역』의 십이소식괘와 연관짓고 또 갑골문자의 형태를 종합하면 삼양의 날은 정월(1월)이고 정월은 봄이다. 봄은 일년을 시작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고 시작이라 한 것인가? 생명체의 약동이다.

그렇다면 『도덕경』 제42장의 삼생만물(三生萬物)은 봄이 되어 만물이 무성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자가 말하는 도(道)는 생도(生道), 곧 생명체가 탄생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며 일(一), 이(二), 삼(三)은 모두 양기(陽氣)의 성장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양기를 생기로 파악하는 역학적 사유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주역과 노자철학의 연관성을 시사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3,000년 전의 시에 나타난 고대인들의 전원적인 삶은 『예기』 「월령」 편과 노자 『도덕경』은 물론 19세기의 『농가월령가』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의 삶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는 텍스트가 『주역』이라는 사실은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시사해주는 점이 많다.